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(6.18.)

- 지금부터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 제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,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.
- 그러나, 눈앞의 “파고”가 낮아졌다고 하여 수면 아래의 “암초”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.
 -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,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,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특히,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말 종료 예정인 화물·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*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,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* 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분의 70%를 보조금으로 지급(280원/ℓ 한도)

[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]

- 오늘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‘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’을 논의합니다.
 - 할인지원, 공급확대,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, 서민·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.

[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]

□ 다음 안건은, '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'입니다.

- 석유 최고가격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, 국내외 유가 추이,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·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[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]

□ 다음은, 에너지·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'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'입니다.

- 하반기부터 LNG,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%로 인하하고,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% 감면하겠습니다.
 -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△25%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-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, 식품·사료원료 9종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, 총 49개 품목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할당관세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·유통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

[AI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]

□ 다음으로는, 'AI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'입니다.

□ 지정학적 리스크,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AI를 활용하여 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동향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수집·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수급·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겠습니다.
- 하반기중에 국민이 직접활용 가능한 ‘알뜰소비앱’을 구축하여 판매처별 가격·할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,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[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]

- 마지막으로, ‘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’을 논의합니다.
 -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 -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협조하여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, 분산하고,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 - 물가안정에 힘써주시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